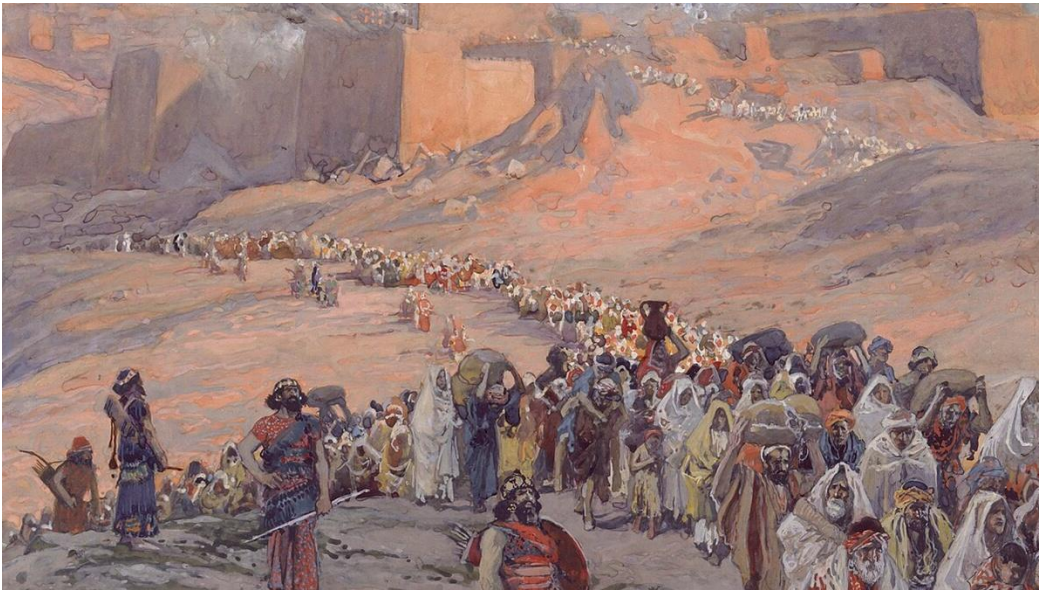


샬롬 샬롬

예레미야 29:1, 4-11

예레미야 시대에 바빌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BC 586 년 바빌론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과 함께 안락한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포로 생활은 단순히 불편한 이민 생활이 아니었겠지요. 그것은 **삶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신앙의 중심인 성전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버림받은 겁니까?”

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달콤한 말을 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바빌론이 곧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얼마나 듣고 싶은 말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말씀하신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70 년 동안 바빌론에서 살게 하신 후,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칠십 년을 다 채우고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칠십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보통 한 세대가
40 년이라고 하니, 거의 두 세대를 아우르는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편지를 예레미야가 써서 포로된 생활을 하는
유다백성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곳에서 살라”입니다.

5-6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장가를 들고 시집을 보내어 아들딸을 낳고 번성하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거기서 포로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거기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곳에서도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생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볼 때 오늘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라. 번성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미국에 이민오신 분들이지요.

어떤 분들은 오신지 수십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몇 년 밖에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저도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벌써 16 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온 이유도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교육 때문에, 어떤 분은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오셨기도 할테도, 또 어떤 분은 어쩌다보니 미국에서 살게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곳 미국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든 여기서 이런 생각 안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나?”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지?”

미국 생활을 아무리 오래했다고 한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외로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자유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꺼라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품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보냈다.”

우리가 실수로 온 것도, 우연히 정착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심겨진 자리인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장환 목사님의 아내, **트루디**
여사님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 여성인데,
1959 년 결혼 후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1959 년 한국을 한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은
때입니다. 아직 전쟁의 상처로 가득하고,
무지무지하게 가난했던 나라였지요. 지금이야
많이 서구화됐지만, 그 당시엔 대단히 한국적인

한국이었을 겁니다. 언어, 문화, 음식 모두 익숙한게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트루디 여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번도 자기가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거나 한국 남편을 만난 것을 불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꽃은 높은 곳이 아니라, 밑에서 피는 거예요.”

좌우명: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소서.”



그분이 오랫동안 했던 일이 파이를 구워 장애 아동을 도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연로해서 더이상 일을 하지 않으시지만 아직도 그 파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한국에 갔을때 저희 가족이 그 파이집에 가서 파이를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더라구요. 강추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파이를 굽고, 또 교회에서는 종종 청소도 하고 주방일을 하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외국인 파출부”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꽃은 높은 곳이 아니라, 밑에서 피는 거예요.”

그분의 좌우명은 이렇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답답하고, 마치 포로 생활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라.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 땅을 축복하라.”

7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나 주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빌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만든 나라입니다. 소위 말해, 내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의 나라 바빌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세상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마 5:44)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마 5:9)

살다보면 억울한 일 만날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답답해서 하소연하지 않고는 못베기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칠천지 원수같은 사람을 만날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절에서 “평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샬롬(שלום)** 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흔히 “샬롬”을 마음의 평화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샬롬은 훨씬 더 깊은 뜻을 지닙니다.

평안: 샬롬 מִשְׁלָם

온전함(wholeness), 완전함(perfection),
다치지 않은 상태, 흠이 없는 모습, 조화로운
관계, 생명의 충만함

샬롬은 온전함(wholeness), 완전함(perfection),
다치지 않은 상태, 흠이 없는 모습, 조화로운 관계, 생명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주어지는 삶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 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면, 내가 땅을 평화(샬롬)롭게 하겠다.”

이사야 59 장에서는

“악인은 평안(샬롬)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샬롬’이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왕(Prince of Peace)’이라 부릅니다.

이사야 9 장 6 절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평화(샬롬)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를 전해주시는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평화 (shalom)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 장은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13-15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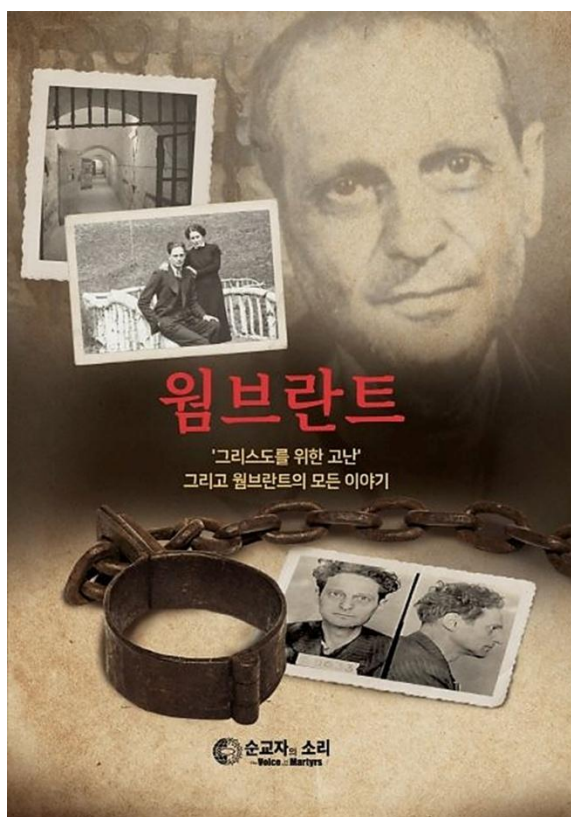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복음 자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의 소식, 우리의 샬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세상에 주는 평화는 무슨 평화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진정한 축복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루마니아의 목사 **리차드 웬브란트**(1909-2001)입니다. 그분은 공산정권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 감옥에 갇히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매일 같이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감방에 돌아오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도관이 그것을 보고 다시 끌어내어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오면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끌어내어 매질을 합니다. 계속 반복되자

이제는 교도관이 제풀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왜 기도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딴습니까? 당신의 꼴을 보세요. 당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당신의 아내도 감옥에 갇혀 있고, 당신의 어린 아이들은 고아가 되어있잖아요. 도대체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겁니까?” 그렇게 역정을 내는 교도관에게 리처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는 지금도 세계 곳곳의 박해받는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책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구 기독교인이 우리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에는 그들이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때보다 우리를 더 심하게 고문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를 올리신 후에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일 뒤에, 그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고, 하루에 오천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샬롬의 힘**입니다.

샬롬은 단지 고요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원수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에게 샬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평화의 공동체’로 볼까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 직장 동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과연, ‘아 이 사람은 샬롬의 사람’이야! ‘평화의 복음의 전도자’라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놀러온 친구들과 다투고 있길래 아버지가 얼른 달려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지금 교회 놀이하고 있었어요.”

웃기지만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보다 다툼이 많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 작가 필립 안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하면 ‘무엇인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로 사랑하고 섬기는 분으로 알려지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것처럼 알려진다면, 세상의 분열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미스채플 한국어예배 성도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것.

심겨진 그곳에 샬롬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1 절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민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미국이 바빌론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이 낯설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shalom shalom!”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shalom shalom”이라고 얘기하는걸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 자신이 어떨때는 좀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shalom shalom’거리나?!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shalom”을 연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똑같은 단어를 의미없이 두번 반복하는게 아니고, 그것이 **완전한
평화 perfect shalom** 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충만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복음의 충만함 말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민 생활 하시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시는 여러분들
계시지요? 아직 언어도, 문화도 낯설고, 외롭고,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시지요?

“내가 여기에 왜 있나?”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근에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한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지금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제가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땅을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이웃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제 가정에, 제 직장, 저희 교회에 **샬롬**이 임하길 원합니다.”

샬롬샬롬!

기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땅에서도, 포로된 것 같이 답답하고 억울한 삶을 마주하고 있다할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심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게 도와주소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미움 대신 사랑을 심게 하소서. 분노 대신 평화를, 절망 대신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샬롬 샬롬 —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 (Reflection Questions):

1. 나는 지금 내가 “심겨진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불평과 원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까?
2. “그 땅을 축복하라”는 말씀을 따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정, 직장, 교회, 이웃)를 어떻게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3. 나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4. 혹시 내 마음 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바빌론”은 없는지요? 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